

광주시 '국립국악원' 유치 발걸음 재촉한다

대전·제주 등 5곳 경쟁... "시너지 효과 최적지" 국악인·교수·전문가 20명 참여 '협의체' 출범

광주시가 국립광주국악원 유치를 위한 행보에 본격 나섰다. 광주시는 민선 7기 공약인 국립광주국악원 건립을 위한 국립광주국악원 유치 협의체를 출범시켰다고 9일 밝혔다. 협의체는 지난 8일 광주에서 첫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활동계획 등을 논의했다.

국립광주국악원 유치 협의체는 안숙선·김성녀·유영애·한상일 선생 등 국악인부터 고려대·한양대·경인교육대·한국교원대·전남대 등 국악 관련학과 교수, 광주국악협회·임방울국악진흥회·지역 언론인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국립광주국악원 건립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홍보활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국립국악원 유치전에 뛰어난 지자체는 광주를 포함해 제주·정선·영동·대전 등 5 곳이다. 광주시는 남원군과 진도의 국립국악원 분원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워 유치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시는 국악원 유치를 통해 국악을 생산·보급·향유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국악원을 전통예술 보존·계

승을 위한 필수 전문기관으로 설립하기 위한 중장기 비전과 지역특성에 적합한 국악 시설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는 남도 판소리 본고장으로 국악원 활성화에 최적지임을 내세워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는 농경문화 발달로 전통문화예술 자원이 풍부하고, 국가무형문화재 80% 이상이 지역출신으로 국악 활성화 기반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또 광산·지산·산월농악, 월계농악 용전 들노래, 서창 만드레 등 생활음악이 발달

했고, 임방울·박유전·정재근·정응민·정권진 명창으로 계보가 전승되고 있다. 국가무형문화재로 송순삼·성장순·성우향 명창 등이 활발하게 활동 중인 점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시는 광역도시에 국악원이 설립되면 접근성·이용 편리성으로 인해 전국대표 국악전문 공연장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논리로 정부와 국립국악원을 설득하고 있다. 특히아시아문화전당·시립국악단·민간 국악단체와 연계해 상생 발전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한양대 김영은 교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국립광주국악원 유치를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중앙부처·국립국악원·국회 방문 등을 통해 올해 국립국악원 소속 국악원 건립 타당성 검토기준 마련 연구 용역비 2억원을 확보했다. 유치가 치열해지자 시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자치분권 정책협의회에서 국악원 유치를 2020년 국비지원 사업에 포함시켜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박항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광주는 명실상부 국악의 텃밭으로 인정받는 도시로, 사람 중심형 국악원의 새 모델 구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적임지다"며 "국립광주국악원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여의도에서 열린 '조국 수호'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린 야당 규탄 조국수호를 위한 '우리가 조국이다' 시민참여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도첨산단에 '노사상생' 인권회관 건립

시의회 동의받아 본격 추진... 2022년 완공 예정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은 노사상생도시를 선언한 광주시가 노사민정 사회대통합 실현을 위해 노동인권회관이 들어선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10일 개최하는 임시회에 노동인권회관 건립계획 보고안을 올렸다. 지난달 공유재산심의의결을 받았으며, 계획안이 의회 동의를 받으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건립을 추진하는 노동인권회관은 남구 도사첨산단입단지내 공공청사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1층 전체면적 6,876㎡ 규모로 지어질 계획이다. 부지매입가 건축공사에 시비 200억원이 투입된다. 노동인권 역사 전시관 및 자료실, 교육공간, 광주형일자리 아카데미, 노동자 복지·편익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기존 산단에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체육, 문화 등 근린생활시설을 확충하고 근무자와 인근 주민의 복지·편의 시설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정부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토지매입 절차에 들어가 2월 착공, 2022년 4월 완공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8월 노사민정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상생 도시 실현을 위한 노동인권회관 건립 협약식'을 열고 노사상생 도시 만들기, 광주형 일자리 성공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도시첨산단에는 남구 압촌동·지석동 일원에 조성하는 에너지산업 중심단지로 인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와 연계해 에너지 관련 기업과 시설이 들어선다. 시는 오는 2022년 6월까지 빛그린산단 내에 국·시비 450억원을 투입해 노사문화 정착과 사회갈등 예방, 중재, 조정의 거점공간인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도 추진한다. 시는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와 노동인권회관을 노사상생과 사회대통합을 실현하는 양대 축으로 삼고 상호 보완·협력관계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황애란 기자

전남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청신호

순천·보성·신안 갯벌 등 국제기구 현지실사서 호평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신청한 전남지역 '한국의 갯벌'이 현지실사에서 호평을 받았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현지실사는 서류·토론자 심사 등 여러 전문가가 참여로 진행되는 세계유산 전체 심사과정의 한 단계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산하 자문기구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수행한 이번 실사는 바스티안 베르츠키씨(Bastian Bertzky, 독일)와 소날리 고쉬씨(Sonali Ghosh, 인도)가 담당했다. 유네스코는 이번 실사결과와 등재신청서 심사를 바탕으로 등재 권고와 보류·반려·등재 불가의 4가지 권고안 중 하나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세계유산 지정은 훼손 위기의 유형유산 보호에 목적이 있다. 국내적 중요성보다는 세계적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중요하게 여긴다.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은 우리나라 서남해안의 대표적 갯벌인 전남 순천·보성, 신안, 전북 고창, 충남 서천의 4곳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다. 모래 갯벌 육지부의 사구 발달, 방풍림 분포, 배후의 염전과는, 자연경관이 뛰어난 자연 송림 등이 있다. 연간 300여 종 약 100만마리가 넘는 철새 이동로로, 다양한 생물종과 대형저서동물(고둥·게·조개류 등) 150여종이 서식하는 생태보고다.

와덴해(독일·네델란드), 미국·중국갯벌과 다른 생태환경도 높게 평가받고 있다. 전체 신청 유산구역은 12만9,346ha다. 모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전남지역이 전체의 약 87%를 차지한다. '한국의 갯벌'은 2010년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이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중앙정부(문화재청·해양수산부)와 지방정부(3개 광역·5개 기초)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래 보편적 가치 도출, 비교연구, 보존관리 계획을 수립했

다. 이번 실사자들은 총평에서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의지와 중앙·지방정부의 긴밀한 관계 유지, NGO 활동을 높게 평가했다. 현지실사 일정 및 동선, 자료제공, 갯벌 설명 등에 충분히 만족하고, 보고 듣고 느낀 바를 IUCN에 보고서로 제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여부는 2020년 6~7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김영민 기자

투자

7억원, 2명

- 대상 - 금매물 · 경매물건
- 기간 - 2년 이내
- 수익 - 연 24% 이상 가능

법적보장. 010-3605-5000

어등산에 '호남의병기념관' 들어선다

시, 377억 들어 추모 시설 등 추진... 2024년 마무리

한말 호남의병 최대 격전지인 광주 광산구 어등산 일원에 호남의병기념관이 들어선다. 광주시는 9일 "한말 의병 전투지로 2013년 보존현충시설로 지정된 어등산 일원에 호남의병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377억5,000만원을 들여 5만㎡ 부지에 4개 동, 전체면적 5,200㎡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다. 주요 시설로 제향과 참배·기념탑 등 추모시설, 전시실·체험실·연구실·수장고 등 전시관람 시설, 강의실·다목적실·숙

박 등 문화교육관, 식당·판매소 등 편의 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시는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호남의병기념관 건립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했다. 시는 내년 2월부터 7월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을 시작으로 내년 말까지 지방재정 및 중앙투자심사와 예산 확보, 2021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토지매입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공해 2024년까지 호남의병기념관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황애란 기자

전남매일 연중 일자리 창출 캠페인

서구일자리센터 Job Cafe

청춘발산 공작소

모든 혜택이 공짜인 Job cafe에서 내일잡(Job)고 내 꿈을 키워보아요~

직접상담사가 제공하는 청년 맞춤형 구직 정보

청년 취·창업 공간제공 (회의실·스터디룸)

노동·법률·심리 등 분야별 전문상담

NCS 직무교육, 면접관리, 취업컨설팅 등 Job Conference

커피한잔, 독서한권, 웹서핑, 명태리기 등 맘껏 할링가능

서구 내방로 392(한국자산관리공사 별관 1층)
Tel: 062-369-8061~2 Fax: 062-369-8060

상무대로 | 삼익면선 | 금호월드 | 신세계백화점 | 무진대로

죽령대로 | 농성역 | 청춘발산 공작소 | 교원복지회관 | 신세계백화점

수원12지리(25/금호30/영신97) | 화정중흥마로 | 교원복지회관 | 신세계백화점

전화062-369-8060/062-1187 | 한국자산관리공사 | 지리25/금호30 | 전화062-369-8060/1187

전국임야

삼니다

당일처리. 010-6834-7400